

## 북카페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Methods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through Book Cafe

최준란, 임대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Choi Jun-Ran, Lim Dae-Geun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and Contents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요약

홍대 앞에 급부상하고 있는 북카페가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강원도의 '감자꽃 스튜디오', 서울의 '광장시장'과 '통인시장'의 변화를 통해 도심 내 효율적인 문화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문화 공간은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문화에 예술을 감상하거나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산물을 직접 생산, 교육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북카페의 특징인 복합 문화 공간을 잘 살려 '지역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북카페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문화와 잘 연계한 강원도 평창의 '감자꽃 스튜디오'를 예를 들어 비교해 본다. 문화 공간은 시대에 맞게 필요에 따라 변모해야 한다. 문화 공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기로 한다.

## I.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지역이 가지는 장소적 특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해 새로운 예술 지역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 홍대 앞을 들 수 있다. 1993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도하여 홍대 앞을 예술이 흐르는 거리로 만들고자 '거리미술제'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홍대 앞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나타났다. [1]

본 연구는 홍대 앞의 독특한 문화에 기여하고 있는 홍대 앞의 북카페를 대상으로 하여 강원도의 '감자꽃 스튜디오'와 서울의 '광장시장' 및 '통인시장'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내 효율적인 문화 공간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신정란·최창규(2010)의 논문에서는 홍대 앞은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미술, 예술 그리고 클럽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복합문화 지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예술가, 문화 전문직 종사자, 외국인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한 인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2]

이무용(2005)은 홍대 앞은 1950~60년대 일반 주거 지역에서 1970~80년대 미술문화 지역, 1990년대 초반의 고급 카페 문화 지역을 거쳐, 1990년대 중후반 클럽 문화

지역, 2000년대에는 이 모든 것이 중층화된 복합 문화 지역으로 발전해왔다고 한다. [4]

이무용(2006)은 홍대 앞 북카페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용 방안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지역 전략은 도시 내 혹은 도시 간 서로 연계하여 공동으로 장소 마케팅을 추진하는 지역 믹스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5]

## II. 문화 공간 활용 사례

### 2.1 문화 공간 활용 사례1 - '홍대 앞 북카페'

홍대 앞은 홍대 미대를 중심으로 한 기반 위에 홍대의 자유롭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찾아 유입된 음악, 디자인, 광고, 출판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은 인적 기반들이 융합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시에 홍대는 국내 유수의 출판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출판사의 대부분은 홍대에 집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판사들의 집중으로 홍대 앞 상권은 더욱 커졌고 이에 새롭게 생겨난 현상이 '출판사 북카페'의 대거 등장이다.

최근에 많은 출판사들이 공격적으로 북카페를 차리고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한 카페 기능 이외에 다양한 문화 공간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문학동네에서 운영하는 '카페꿈마'는 문학동네 저자 미팅 장소뿐 아니라 기업의 문학 행사 장소로도 자주 이용된다. 창비출판사의 '인문카페 창비'는 일주일에 두 번 이

상 자사 저서를 중심으로 문화 행사를 연다. 행사는 한 회 평균 80명이 초대되고, 초대된 독자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 '후마니타스 책다방'은 카페 공간 안에 출판사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후마니타스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 한쪽에 서 일하고 있는 출판사 직원을 볼 수 있다. 이 출판사는 신간 출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강독모임을 알린다. 책이 나오면 함께 강독하고 저자와의 만남도 수시로 연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판사에서 직접 북카페를 여는 이유에는 첫째, 새로운 책을 홍보하는 장소, 둘째, 충성스러운 독자를 불러 모으는 장소, 셋째, 출판사 편집자들과 저자를 만나는 장소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 2.2 문화 공간 활용 사례2 - '감자꽃 스튜디오'

강원도 평창에 있는 '감자꽃 스튜디오'는 농촌의 폐교를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해 지난 10년 가까이 지역 주민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문화행사를 이끌어왔다.

감자꽃 스튜디오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다. 내부사업으로는 봄소풍, 여름캠프, 가을운동회, 겨울성탄극장이라는 절기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평상시에 진행되는 문화교육활동의 발표회 또는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활용한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진행되는 시장 활성화 사업을 가리킨다.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는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한다.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어떤 특성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이식시켜 지역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자꽃 스튜디오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 2.3 문화 공간 활용 사례3

### - '광장시장'과 '통인시장'

최근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광장시장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광장시장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위치하며 10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다.

'광장시장'은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이 아니다. 을사조약으로 조선이 쇠락하던 시기 고종 황제가 조선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돈을 풀어 만든 상설 시장이 바로 이곳으로 그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 일제 강점기를 앞둔 1905년 일본 상권이 남대문까지 파고 들어왔을 때 마지막 남은 조선의 상권인 종로라도 지키고자 만든 것이다. 광장시장은 이와 같은 역사적 스토리에 먹거리와 전통시장 특유의 정을 덧입혀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재탄생하게 되었다.

광장시장과 함께 최근 떠오르는 문화 공간으로 종로구 옥인동에 '통인시장'이 있다. 이곳은 손님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원하는 반찬을 도시락에 채워 먹는 '도시락 카페'로 유명하다. 시장이라는 공간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덧붙여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던 재래시장에 활기를 되찾아준다. 지역 주민(상인)들의 직접 참여로 단순 생활 문화 기반이었던 시장을 '문화관광지' 역할까지 해내도록 하면서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다.

## III. 결론 및 향후 과제

홍대 앞에 급부상하고 있는 북카페가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강원도의 감자꽃 스튜디오, 서울의 광장시장과 통인시장의 변화를 통해 도심 내 효율적인 문화 공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첫째, 출판사 북카페는 책 홍보를 넘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헌책 바자회를 개최하거나, 독서 문화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서점을 대신할 만한 열린 문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홍대 북카페의 특징인 복합 문화 공간을 잘 살려 '지역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감자꽃 스튜디오'와 같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진 지역 커뮤니티의 모습으로 변화 발전되었으면 한다. 셋째, '광장시장'과 '통인시장'을 예로 든 것처럼 인공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홍대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잘 살려 스토리가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모습을 지향해야 한다.

문화 공간은 시대에 맞게 필요에 따라 변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대 지역의 문화 공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홍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도 지역 커뮤니티 공간 제안을 확대 연구해보기로 한다.

## ■ 참고 문헌 ■

- [1] 서보경 · 이진욱 · 하재명, "도심에 적합한 문화 공간 조성 유형의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11호(통권 241호), pp.208, 2008.
- [2] 신정란 · 최창규, "홍대 지역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인적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5권, 제7호, pp.6, 2010.
- [3] 오동훈, "문화 공간 조성을 활용한 선진 도시재생 성공사례 비교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1호, 2010.
- [4] 이무용, "홍대 지역 클럽문화, 그곳에 담긴 욕망과 생성의 문화정치", 대한지리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pp.18, 2005.
- [5] 이무용,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1호, pp.52, 2006.